

99.2.

신세대 결혼비용·형식 '독립만세'

자신들 힘으로 준비... 혼수·함들이 줄이고 집·신혼여행에 투자

15일 서울 중구 신당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박수경(27·영등포 수도사업소 총무과 근무)씨는 지난 1월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 직장생활 1년6개월 동안 모아놓은 돈은 딱 2백만원, 합쳐서 7백만원이다. 부모님의 도움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결혼자금이었다.

10자짜리 장롱 60만원, 침대 40만원, 장식장 15만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1백85만원, 집 도배비 50만원, 친정 부모와 시가 부모 그리고 동생들 웃값 3백만원 등이 혼수 비용의 전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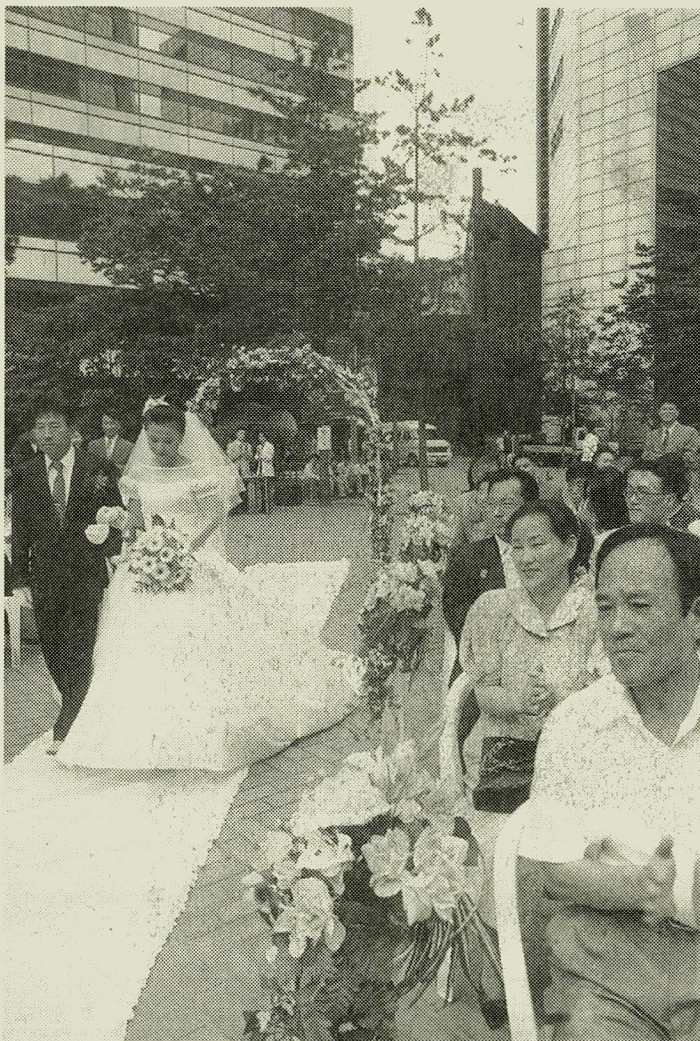
예물은 금반지 한개씩만 주고 받기로 했다. 이밖에 성당에서의 결혼식 비용과 음식, 드레스값은 양쪽 부모님이 반반씩 부담한다. 3백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이 비용도 부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편 이승진(30·대우중공업 총무부 근무)씨는 2천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방 두개짜리 15평 전세집을 구했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 허니문 룸은 이씨의 회사 콘도다.

"당연히 결혼비용은 우리 돈으로 준비해야죠. 신세대답시고 새롭게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큰소리 쳐놓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제 뜻대로 못하고 관습에 따르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패물은 주고 받아 뭐 합니까?" 2천5백만원의 빚을 안고 시작하는 신혼이지만 자신만만하다.

물론 양쪽 집안 모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다. 이들도 대졸 학력에 번듯한 직장인이다. '제 멋대로의' 선택일 뿐이다. 신세대다운 어른되기 선언이다.

지난해말 결혼식을 올린 박진용(27·제일컴텍 근무) 송민자(27·삼성생명 영업부 근무)씨 부부는 함들이와 야외촬영, 결혼식 피로연 등의 행사를 과감하게 생략했다.



결혼 준비도, 결혼식도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신세대들의 소망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소망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친구들 가운데 처음으로 하는 결혼식이어서 나름대로 좋은 선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내 다음으로 결혼할 친구들은 으레 함들이는 안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결혼 전전날밤 남편 박씨는 자신이 쓰던 가방에 혼서지와 시계·반지만 달랑 담아두고 혼자 신부집으로 향했다. 대신 모든 돈을 집 장만에 썼다. 3천만원 대출받고, 융자 끼고, 모아둔 돈을 합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19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사실 좀 무리이긴 했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죠."

원유순(27·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근무)·최상경(30·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산소 근무)씨 부부는 결혼식장으로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을 선택했다. 결혼식장 비용은 무료였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무 '의미없는' 비용은 줄이겠다는 생각에서다.

원씨가 따로 마련한 '결혼수첩'에는 반지 16만8천원, 시계 29만원, 예복 28만7천원, 버스전세비 18만원, 청첩장 9만원 등 지출항목이 꼼꼼히 적혀 있다.

"중고등학교때부터 가지고 있던 통장에 직장생활 3년 동안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2천만원을 만들었지요. 그 돈으로 준비했는데 7백만원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번 돈으로 준비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싼 걸 고르고, 쓸데없는 비용은 팍팍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들은 1백50여만원을 들여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쓰고 싶은데는 과감히 쓰겠다는 식이다.

신알뜰과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아끼고 보자'는 예전의 알뜰파들과는 사뭇 다르다. 쓰고 싶은 분야에는 주저없이 쓴다. 패물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은 이벤트로 꾸미고, 가구는 사지 않더라도 신혼여행은 외국으로 다녀온다.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의 결정이 예전에는 부모 뜻대로였다면 요즘은 신혼부부들 개성에 맡기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큰 변화다." 결혼문화원 신산

철 총무의 지적이다. 경제력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증가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줬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단법인 저축추진중앙위원회(회장 이상철)가 지난해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했던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에서 결혼비용을 본인이 모두 마련한다는 비율은 28.0%였다. 93년 같은 조사에서는 14.6%밖에 안됐다. 13% 이상은 수치다. 결혼비용 규모 결정자도 본인인 경우가 90년 24.1%에서 96년 26%로 높아졌다.

김미경 기자